

VI. 영 국

□ FY2010-11 : 2010. 4~2011. 3

□ 출처 :

- HM Treasury, *The Budget 2010*, 2010. 6. 22
- _____, *Spending Review 2010*, 2010. 10. 20
- The 2010 Autumn Statement¹⁰⁾: Briefing papers, 2010. 11. 29
- <http://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0/11/autumn-statement/>
- OBR¹¹⁾,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29
- <http://budgetresponsibility.independent.gov.uk/econ-fiscal-outlook.html>

□ 환율 : 1파운드 = 약 1,993.8원 (200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2조 1,689억달러(우리나라 1.6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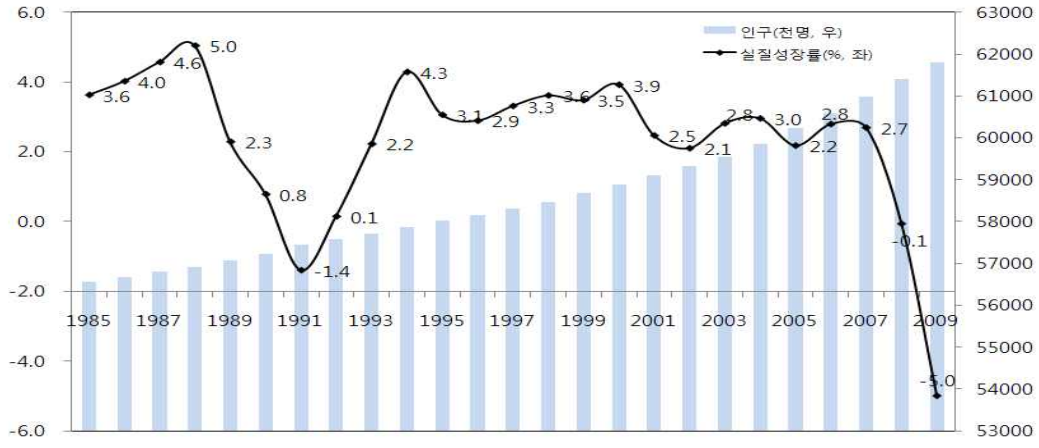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9년 기준 57.8%(우리나라 95.9%)

□ 인구 : 6,179만명(2009년 기준)

10) 영국의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3월에 발표될 예정임. 2009년까지는 예산안 발표 3개월 전에 사전예산안(Pre-budget Report)을 발표하였으나 현 정부는 사전예산안을 폐지하고 재무장관의 가을성명(Autumn Statement)으로 대체함

11)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1년 GDP성장률은 2010년 6월 전망치보다 0.2%p 감소한 2.1%로 전망
- 전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FY2009-10 공공부문순차입 GDP대비 비중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 GDP대비 비중은 FY2011-12에 60.8%로 예측하고 FY2013-14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

◇ 예산기조

- 2010년 예산안은 책임, 자유, 공정성을 기조로 재정적자 감축 규모 확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계획 수립
- 2010년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2010)에서는 정책기조를 성장, 공정성, 개혁, 국방 및 안보로 설정

◇ 세입 및 지출

- 예산책임청(OBR)은 가을 경제·재정전망에서 FY2010-11 경상세입을 2010년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증가한 5,497억파운드(GDP의 37.1%)로 전망
-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FY2011-12부터 4년간 지출계획을 6월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상향조정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정책) 총 2,000억파운드 규모의 국가 인프라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수립, 법인세 기본세율 인하 등
- (재정건전화) 약 62억파운드의 FY2010-11 지출삭감(saving package) 계획 발표 및 복지예산 연간 70억파운드 추가 삭감
- (복지지출 관리 정책) 국가의료서비스(NHS) 효율화 프로그램 및 의료제도개혁으로 지출 감축 노력,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복지급여 상한(Benefit Cap) 설정 등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 일시 | 주요 정책 및 사건 | 참고자료 |
|--------------|----------------------------|---------|
| 2009. 12. 09 | 2009 Pre-budget | 재정동향 1호 |
| 2010. 03. 24 | FY2010-11 예산안 | 재정동향 2호 |
| 2010. 05. 11 | 연정협약서 | 재정동향 3호 |
| 2010. 05. 24 | FY2010-11 saving package | |
| 2010. 06. 17 | 사업평가 예산삭감 | |
| 2010. 06. 22 | FY2010-11 예산안(긴급) | |
| 2010. 09. 06 | NICs 감면 | |
| 2010. 09. 20 | Tax Increment Financing | 재정동향 4호 |
| 2010. 10. 04 | 사회보장급여 상한설정 | |
| 2010. 10. 20 | Spending Review 2010 | |
| 2010. 10. 20 | 복지예산 삭감 | |
| 2010. 10. 20 | 복지급여 간소화(Universal Credit) | |
| 2010. 10. 25 | 국가인프라구축 계획 | |
| 2010. 11. 26 | 공공서비스연금 개혁 추진 | 재정동향 5호 |
| 2010. 11. 29 | OBR 11월 경제재정전망 | |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1970~1990년대 경기회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

- (성장) 2010년 GDP 성장률은 2010년 6월 예산책임청(OBR) 전망치보다 0.6%p 높은 1.8%로 전망하고, 2011년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0.2%p 감소한 2.1%로 전망
 - 더블딥(double dip)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OBR은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으로 판단함
 - 2011년 중 성장률이 가장 둔화되는 시기는 1사분기로 약 0.3%p 증가하고 4사분기에는 0.7%p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2년 이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보다 높게 전망됨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의 이유로 2010년 3.0%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 1.9%로 감소
 - 2014년까지 중앙은행(Bank of England) 목표치(2.0%)를 충족할 전망
- (실업) 경기회복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어 실업률이 2011년 8%에서 2015년 6%로 하락할 전망
 - 일반정부 공공서비스 인력 감축 규모는 2010년 6월에 전망한 490,000명보다 축소된 330,000명으로 전망함

<표 VI-1> 영국 경제전망

| 경제 전망 | 실적치 | 전망치 | | | | |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실질GDP 성장률(%) | -5.0 | 1.8 | 2.1 | 2.6 | 2.9 | 2.8 | 2.7 |
| - 민간소비 | -3.3 | 1.1 | 1.3 | 1.5 | 1.9 | 2.1 | 2.2 |
| - 민간투자 | -18.8 | 1.3 | 8.6 | 8.4 | 10.2 | 9.8 | 7.6 |
| - 정부소비 | 1.0 | 1.8 | -0.4 | -1.3 | -1.8 | -2.4 | -1.7 |
| - 정부투자 | 14.2 | 1.0 | -15.3 | -9.7 | -5.9 | -1.5 | 2.6 |
| - 순무역 | 0.7 | -0.9 | 0.7 | 0.9 | 0.7 | 0.6 | 0.5 |
| 소비자물가(CPI, Q4) | 2.1 | 3.0 | 2.8 | 1.9 | 2.0 | 2.0 | 2.0 |
| 실업률(ILO) | 7.6 | 7.9 | 8.0 | 7.7 | 7.2 | 6.7 | 6.1 |
| 생산갭(Output Gap) | -4.2 | -3.3 | -3.4 | -3.0 | -2.3 | -1.6 | -0.9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3.1에서 발췌

나. 재정전망

- (세입, 세출) 세입 증가와 공공서비스·사회보장 지출 감소로 재정적자 감축 전망
 - Spending Review 2010에서 발표된 복지지출 삭감으로 FY2014-15에 약 15억파운드의 재정적자 감축 예상
 - 세입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단기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법인세 감소와 부동산가격, 이자율, 유가 하락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
 - FY2015-16 세입규모는 6월 전망보다 24억파운드 감소한 7,346억파운드(GDP 대비 38.3%)로 전망
 - 총관리지출은 국제이자비용과 공공부문 연금 순지출 하향 전망으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도 GDP 대비 0.1%p~0.6%p 감소할 것으로 예측
 - FY2011-12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중을 45.4%로 예측하고, FY2015-16에는 39.3%까지 감소할 전망

□ (재정적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비중은 FY2010-11 10.0%에서 FY2011-12에 7.6%로 감소하고, FY2015-1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FY2009-10 공공부문 순차입의 GDP 비중은 11.1%(1,560억파운드)이며 FY2015-16에 GDP 대비 1.0%(18억파운드)까지 감소
- FY2010-11 공공부문 순차입은 지난 6월 전망치보다 약 10억파운드 줄어든 총 1,485억파운드 규모

□ (국가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는 FY2013-14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

- FY2011-12의 공공부문 순부채 비중은 60.8%로 예측
- FY2013-14에 69.7%까지 증가한 후 FY2015-16에는 67.2%로 감소
- 일반정부(마스트리히트) 기준의 국가채무는 FY2012-13에 GDP의 84.7%까지 증가한 후 FY2015-16에 79.8%로 감소

<표 VI-2>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 GDP 대비 %)

| | 실적 | 전망 | | | | | |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경상세입 | 36.6 | 37.1 | 37.8 | 38.1 | 38.3 | 38.4 | 38.3 |
| 총관리지출(TME) | 47.7 | 47.1 | 45.4 | 43.7 | 41.8 | 40.4 | 39.3 |
| 경상수지 | -7.6 | -7.2 | -5.6 | -3.9 | -2.1 | -0.6 | 0.3 |
| (10억 £) | -106.6 | -106.2 | -87.0 | -64.0 | -37.0 | -11.0 | 6.0 |
| 경기조정 경상수지 | -5.3 | -4.7 | -3.3 | -1.8 | -0.5 | 0.5 | 0.9 |
| 순투자 (10억 £) | 49.4 | 42.3 | 31.0 | 27.0 | 23.0 | 24.0 | 24.0 |
| 공공부문 순차입 | 11.1 | 10.0 | 7.6 | 5.6 | 3.5 | 1.9 | 1.0 |
| (10억 £) | 156.0 | 148.5 | 117.0 | 91.0 | 60.0 | 35.0 | 18.0 |
| 경기조정 순차입 | 8.8 | 7.6 | 5.3 | 3.5 | 1.9 | 0.8 | 0.3 |
| 중앙정부 순현금소요 | 14.2 | 9.7 | 7.7 | 5.6 | 4.1 | 2.1 | 1.4 |
| (10억 £) | 198.8 | 144.2 | 120.0 | 91.0 | 70.0 | 39.0 | 27.0 |
| 공공부문 순현금소요 | 9.6 | 9.2 | 7.8 | 5.7 | 4.5 | 2.6 | 1.6 |
| 공공부문 순부채 ¹⁾ | 53.5 | 60.8 | 66.3 | 69.1 | 69.7 | 68.8 | 67.2 |
| (10억 £) | 772.0 | 922.9 | 1052.0 | 1157.0 | 1232.0 | 1284.0 | 1320.0 |
| 순자산(net worth) ²⁾ | 13.8 | 7.9 | 3.2 | -0.3 | -2.0 | -1.7 | -0.4 |
| 재정적자 ³⁾ | 11.4 | 9.9 | 7.5 | 5.6 | 3.5 | 2.0 | 1.0 |
| 경기조정 재정적자 | 9.1 | 7.5 | 5.2 | 3.5 | 1.9 | 0.8 | 0.4 |
| 국가채무 ⁴⁾ | 71.3 | 77.9 | 82.6 | 84.7 | 84.2 | 82.3 | 79.8 |

Note: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한시적 금융시장 개입효과를 제외

주: 1) 3월 말 기준

2) 12월 말 기준

3)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순차입

4)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채무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4.23

2. 예산기조¹²⁾

1) FY2010-11 예산안 (2010. 6)

- 2010년 예산안은 책임, 자유, 공정성을 기조로 향후 5년간의 포괄적인 재정계획 수립
- (책임) 재정적자 감축 규모 확대
 - FY2011-12에 지출삭감 150억파운드, 세금인상 62억파운드 목표
 - FY2014-15에 지출삭감 320억파운드, 세금인상 80억파운드 확보 계획
 - 지출감축 일환으로 11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개혁 시행과 공공부문 임금 동결
 - 2011년부터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공공서비스연금의 급여인상 물가연동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전환
 - 연소득 21,000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 2년간 임금 동결
- (자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 현행 28%의 법인세율을 FY2011-12부터 4년간 매년 1%씩 인하
 - 소규모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FY2011-12부터 20%로 인하(현행 21%)
 - 기업금융보증 규모 확대와 새로운 성장자본기금 창출
 - 2011. 3. 31까지 소규모기업 대출 7억파운드 추가지원
 - FY2011-12부터 1%p 인상되는 국민보험기여금(NICs)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주의 NICs 부담 면제 기준 소득 인상
 - 기준 주(weekly) 소득의 물가연동 부분을 초과하여 주 21파운드 상향조정

12) 2011-12 회계연도 예산안은 2011년 3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므로 가장 최근(2010. 6)에 발표된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의 내용 및 2010년 10월 발표된 Spending Review를 정리하였음

□ (공정성) 취약계층 보호 등 공정성 확보

- 2011년 4월부터 기본세율 납세자들의 개인인적공제 한도(65세미만)를 1,000파운드 인상
- 고세율 납세자들의 자본이득세율을 28%로 인상(10%p)하고, 기업가공제 총한도를 현행 200만파운드에서 500만파운드로 확대
- 은행의 저위험투자 자원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2011. 1. 1부터 은행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과세하는 은행세(Bank levy) 도입
- 자녀세액공제 인상의 재원확충을 위해 3년간 자녀수당(Child Benefit) 동결
- 2011년 4월부터 국가기초연금은 소득, 가격, 2.5% 중 최대치에 연동

2) Spending Review 2010 (2010. 10)

□ 정책기조를 성장, 공정성, 개혁, 국방 및 안보로 설정

□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수출, 투자, 기업 지원

- 교통부문 투자 및 유지보수
 - FY2011-12~FY2014-15까지 도로건설과 지방교통제도에 총 100억파운드 투입
 - Network Rail(철도기반시설 관리회사)에 140억파운드 투자
- 과학연구분야 경상지출 예산에 FY2014-15까지 총 46억파운드 배정
- 성인 도제제도(apprenticeship) 재원 2억 5천만파운드 증액(FY2014-15 기준) 등

□ (공정성) 학교에 대한 지출 유지와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새로운 교육지원제도(fairness premium) 재원으로 FY2011-12~FY2014-15까지 총 72억파운드 배정
- 600개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재건축,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사회적 보호(social care) 지원을 위해 FY2014-15 기준 연간 2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재원 배정 등

□ (개혁) 자유 증진과 책임 분담의 연정 원칙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개혁

- 지방정부의 예산 관리 자율성 강화, 양형제도(sentencing framework) 개혁
- 공공서비스연금의 가입자 기여율 인상을 통해 FY2014-15 기준 연간 18억파운드 절감
- 중앙정부 행정예산 34% 삭감으로 FY2014-15 기준 연간 59억파운드 절감 등

□ (국방 및 안보) 전략적 국방 및 안보 검토서 결과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관련 지출에 대한 검토와 사이버 국방 및 예상 위협 대응에 대한 투자 설정

- 해외원조 지출 중 국제적 갈등 및 불안 완화를 위한 지출비중을 30%로 확대(현재 약 20%, 19억파운드 규모),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중점적으로 원조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FY2011-12 ~ FY2014-15까지 총 6억 5천만파운드 신규 배정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2010년 예산안에서 FY2010-11 경상세입을 약 5,477억파운드(GDP의 37.2%)로 예측

- 총선 전 보수당 정부의 3월 예산안 예측보다 약 70억파운드 증가
 - 세입 증대는 대부분 VAT 인상 효과로 FY2010-11 28억파운드, FY2011-12이후는 120억파운드 이상 확보 전망
- 예산책임청(OBR)은 가을 경제·재정전망에서 FY2010-11 경상세입을 2010년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증가한 5,497억파운드(GDP의 37.1%)로 전망

- VAT의 경우 2010년 예산안에 비해 FY2010-11에 15억파운드, FY2015-16에 57억파운드 상향 전망

□ OBR이 발표한 11월 경제·재정전망에서는 FY2012-13에서 FY2015-16까지 경상세입이 2010년 예산안 예측치보다 감소할 전망

- VAT 증가보다 법인세와 인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측
- GDP 대비 경상세입 비중 역시 2010년 예산안에 비해 0.1~0.4% 하향 전망

<표 VI-3> 경상세입

(단위: 십억파운드)

| | 실적 | 전망 | | | | | |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소득세(세액공제 포함) | 147.2 | 151.0 | 156.5 | 168.4 | 182.0 | 196.5 | 209.9 |
| pay as you earn | 122.9 | 131.0 | 133.1 | 139.5 | 149.5 | 160.2 | 171.2 |
| self assessment | 21.7 | 20.2 | 23.6 | 28.4 | 31.6 | 34.9 | 36.9 |
| 소득세 세액공제 | -5.6 | -5.5 | -4.7 | -4.3 | -4.3 | -4.3 | -4.4 |
| NICs | 96.9 | 98.5 | 102.8 | 108.4 | 114.1 | 120.7 | 127.4 |
| VAT | 73.5 | 84.9 | 100.1 | 103.6 | 107.8 | 112.5 | 117.6 |
| 법인세 | 36.5 | 43.5 | 45.5 | 47.8 | 50.2 | 52.5 | 54.4 |
| onshore | 31.0 | 35.8 | 37.3 | 40.2 | 43.1 | 45.4 | 48.0 |
| offshore | 5.6 | 7.7 | 8.1 | 7.6 | 7.1 | 7.1 | 6.4 |
| 법인세 세액공제 | -0.7 | -0.9 | -0.9 | -0.9 | -0.9 | -0.9 | -0.9 |
| 석유세 | 0.9 | 1.5 | 1.6 | 1.7 | 1.6 | 1.5 | 1.3 |
| 연료세 | 26.2 | 27.7 | 29.3 | 30.7 | 32.1 | 33.8 | 35.0 |
| 비거주재산세 | 23.4 | 23.8 | 25.6 | 26.8 | 27.9 | 28.9 | 29.3 |
| 카운슬세 | 25.3 | 25.7 | 26.1 | 27.2 | 28.9 | 30.0 | 31.2 |
| VAT 환급(refunds) | 11.2 | 13.6 | 15.1 | 14.9 | 14.7 | 14.7 | 15.0 |
| 자본취득세 | 2.5 | 2.8 | 3.2 | 2.7 | 3.4 | 4.0 | 4.5 |
| 상속세 | 2.4 | 2.7 | 2.7 | 2.8 | 3.0 | 3.2 | 3.5 |
| 인지세 | 4.9 | 6.0 | 6.3 | 7.9 | 9.2 | 10.5 | 11.5 |
| 인지세(on shares) | 3.0 | 3.1 | 3.4 | 3.7 | 4.1 | 4.4 | 4.7 |
| 담배세 | 8.8 | 9.4 | 9.4 | 9.5 | 9.7 | 9.9 | 10.1 |
| 산업용주정(spirits)세 | 2.7 | 2.6 | 2.5 | 2.6 | 2.7 | 2.8 | 2.9 |
| 와인세 | 3.0 | 3.2 | 3.3 | 3.5 | 3.8 | 4.0 | 4.4 |
|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 3.5 | 3.7 | 3.8 | 3.9 | 4.1 | 4.2 | 4.4 |
| 항공여객세 | 1.9 | 2.2 | 2.6 | 2.8 | 3.0 | 3.3 | 3.6 |
| 보험료세 | 2.3 | 2.5 | 2.8 | 2.8 | 2.9 | 2.9 | 3.0 |
| 기타 국세(HMRC taxes) | 6.0 | 6.7 | 7.0 | 7.2 | 7.4 | 7.6 | 7.7 |
| 자동차세 | 5.6 | 5.9 | 5.9 | 6.0 | 6.1 | 6.2 | 6.2 |
| 은행원천세 (bank payroll tax) | 0.0 | 3.5 | 0.0 | 0.0 | 0.0 | 0.0 | 0.0 |

<표 VI-3> 의 계속

(단위: 십억파운드)

| | 실적 | 전망 | | | | | |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은행세(bank levy) | 0.0 | 0.0 | 1.2 | 2.3 | 2.5 | 2.4 | 2.3 |
| Licence fee receipts | 3.0 | 3.1 | 3.1 | 3.1 | 3.1 | 3.2 | 3.2 |
| 환경부담금 | 0.5 | 0.6 | 1.8 | 2.0 | 2.6 | 3.0 | 3.4 |
| 기타 조세 | 5.3 | 5.3 | 5.4 | 5.9 | 7.8 | 8.1 | 8.3 |
| National Accounts taxes | 490.3 | 526.7 | 561.5 | 593.1 | 629.4 | 665.6 | 699.3 |
| 예산(6월) 대비 증감 | -0.7 | 3.5 | 3.9 | 0.7 | -0.6 | -0.5 | -1.6 |
| EU 부담금 공제 | -3.8 | -4.9 | -4.9 | -5.0 | -5.2 | -5.4 | -5.5 |
| 이자 및 배당 | 3.5 | 3.8 | 4.7 | 6.2 | 7.8 | 9.6 | 11.5 |
| 총운영수지 | 23.6 | 23.8 | 24.9 | 26.0 | 27.1 | 28.3 | 29.5 |
| 기타수입 | 0.1 | 0.2 | 0.1 | 0.0 | 0.0 | -0.1 | -0.1 |
| 경상수입 | 513.8 | 549.7 | 586.2 | 620.3 | 659.1 | 698.0 | 734.6 |
| 예산(6월) 대비 증감 | -0.9 | 2.0 | 2.0 | -1.6 | -2.7 | -2.1 | -2.4 |
| GDP 대비 비중(%) | 36.6 | 37.1 | 37.8 | 38.1 | 38.3 | 38.4 | 38.3 |
| 예산(6월) 대비 증감(%p) | 0.1 | -0.1 | -0.1 | -0.3 | -0.4 | -0.4 | -0.4 |
| UK 석유가스 세입 | 6.5 | 9.1 | 9.8 | 9.4 | 8.6 | 8.6 | 7.7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4.6~4.7

나. 세출¹³⁾

- (2010년 예산안) 62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긴축안(savings package)을 포함한 대규모 지출 삭감을 계획
 - FY2010-11 총관리지출은 3월 예산안보다 약 72억파운드 감소한 6,968억파운드
 - 부처별지출한도는 약 134억파운드 감소, 연간관리지출은 약 62억파운드 증가
 - FY2014-15 부처별지출한도는 FY2010-11에 비해 약 90억파운드 감소
 - FY2014-15에 자원(resource) 연간관리지출 약 3,446억파운드, 자본 연간관리지출 약 69억파운드로 예측

13) 영국의 총관리지출(TME)은 연간관리지출(AME)과 부처별지출한도(DEL)의 합.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성격의 지출로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 (Spending Review 2010) 연간관리지출을 대폭 삭감하였으나 부처별지출한도 증가와 연간관리지출 예비비 설정으로 FY2011-12이후 4년간의 총지출계획은 6월 예산안보다 약 20억파운드 상향조정

- 복지지출 삭감 등 연간관리지출 억제 정책으로 FY2015-16에는 연간관리지출이 6월 예산안보다 약 106억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부처별지출한도는 6월 예산안보다 다소 상향조정
 - FY2015-16에 자원(resource) 부처별지출한도는 약 73억파운드, 자본 부처별지출한도는 약 16억파운드 증가
- Spending Review에서 계획한 FY2014-15 부처별 지출한도는 FY2010-11에 비해 약 90억파운드 감소
 - FY2014-15 NHS 의료지출은 FY2010-11에 비해 약 106억파운드 증가
 - 특별 예비비(Special Reserve)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OBR Autumn Forecast) FY2011-12의 총관리지출을 약 7,037억파운드로 전망

- 이 중 부처별지출한도가 약 3,718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은 약 3,319억파운드임
- 연간관리지출 전망의 차이로 총관리지출은 2010년 10월 Spending Review보다 FY2010-11에 약 14억파운드, FY2011-12에 약 18억파운드 증가
 - FY2012-13에 약 17억파운드, FY2014-15에는 약 68억파운드 감소한 전망 제시
- 2010년 예산안(6월)과 비교하면 총관리지출은 FY2011-12에 약 38억파운드 상향 전망하고 FY2015-16에 약 46억파운드 하향 전망
 - 특히 FY2013-14 이후에는 사회보장급여 지출과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비용, 순공공서비스연금 지출이 2010년 예산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총관리지출 비중도 6월 예산안에 비해 0.1~0.6%p 줄어들 전망

<표 VI-4> June Budget, Spending Review, OBR Autumn forecast 지출전망 차이

(단위 : 십억파운드)

| | Forecast | | | | | |
|---|----------|---------|---------|---------|---------|---------|
|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TME in June forecast | 696.8 | 699.8 | 711.0 | 722.0 | 737.5 | 757.5 |
| TME in November forecast | 698.2 | 703.7 | 711.3 | 719.3 | 733.0 | 752.9 |
| of which: Total DEL | 379.2 | 371.8 | 371.9 | 373.8 | 373.9 | 381.2 |
| Total AME | 319.0 | 331.9 | 339.4 | 345.6 | 359.1 | 371.7 |
| Total change in TME since June forecast | 1.4 | 3.8 | 0.3 | -2.6 | -4.5 | -4.6 |
| Change in TME in Spending Review ²⁰¹⁰ | - | 2.0 | 2.0 | 2.3 | 2.3 | - |
| Increase in resource DEL ¹ | - | -0.4 | 1.6 | 5.8 | 7.3 | - |
| Increase in capital DEL | - | 2.0 | 2.3 | 2.2 | 1.6 | - |
| AME measures | - | -0.7 | -3.8 | -8.8 | -10.6 | - |
| Inclusion of AME margin ² | - | 1.0 | 2.0 | 3.0 | 4.0 | - |
| Changes in OBR forecast compared to Spending Review | 1.4 | 1.8 | -1.7 | -4.9 | -6.8 | -4.6 |
| Change in resource DEL ¹ | -0.8 | - | - | - | - | 9.4 |
| Change in capital DEL | - | - | - | - | - | 1.9 |
| Recosting of Spending Review AME measures | - | 0.0 | 0.1 | 0.8 | 0.9 | -9.9 |
| Removal of AME margin | - | -1.0 | -2.0 | -3.0 | -4.0 | - |
| Adjustment to remove Green Investment Bank transactions | - | - | - | -1.0 | - | - |
| Forecasting changes to AME | 2.2 | 2.9 | 0.2 | -1.6 | -3.7 | -6.0 |

주 1. 자원(resource) DEL은 감가상각과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보조 비용을 제외

2. OBR Forecast에서는 Spending Review에서 설정한 연간관리지출 예비비(margin)를 제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4.12

<표 VI-5> 총관리지출

(단위 : 십억파운드)

| | 실적 | 전망 | | | | | |
|---------------------------|-------|---------|---------|---------|---------|---------|---------|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 경상지출 | | | | | | | |
| 자원 DEL | 334.9 | 342.2 | 342.7 | 344.4 | 348.9 | 348.0 | 352.8 |
| 자원 AME | 266.0 | 293.2 | 308.3 | 317.0 | 323.3 | 336.5 | 350.2 |
| 사회보장급여 ¹⁾ | 163.5 | 169.3 | 174.5 | 177.0 | 176.5 | 181.2 | 188.1 |
| 세액공제 ¹⁾ | 22.9 | 24.1 | 25.6 | 26.5 | 26.3 | 26.4 | 26.9 |
| 순공공서비스연금 ²⁾ | 3.2 | 4.3 | 5.1 | 5.3 | 5.2 | 5.9 | 7.0 |
| 국가복권 | 1.0 | 0.9 | 1.1 | 0.9 | 0.8 | 0.8 | 0.8 |
| BBC 내국 서비스 | 3.5 | 3.4 | 3.6 | 3.5 | 3.7 | 3.5 | 3.6 |
| 기타부처지출 | 0.0 | -0.6 | 1.5 | 2.3 | 2.6 | 2.6 | 2.7 |
| 순 EU분담금 | 6.4 | 8.4 | 8.8 | 8.4 | 9.2 | 10.1 | 8.3 |
| 지방재정(Locally-financed) 지출 | 25.7 | 26.7 | 27.2 | 28.7 | 30.2 | 31.5 | 32.4 |
|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 30.9 | 42.7 | 44.0 | 48.6 | 53.5 | 58.9 | 63.1 |
| 회계 조정 | 8.9 | 13.9 | 16.9 | 15.6 | 15.2 | 15.6 | 17.3 |
| 공공부문 경상지출 | 600.9 | 635.4 | 651.0 | 661.3 | 672.2 | 684.5 | 703.0 |
| 자본지출 | | | | | | | |
| 자본 DEL | 57.0 | 51.4 | 43.5 | 41.8 | 39.2 | 40.2 | 42.7 |
| 자본 AME | 12.0 | 11.4 | 9.2 | 8.1 | 7.9 | 8.3 | 7.1 |
| 국가복권 | 0.8 | 1.0 | 0.6 | 0.6 | 0.6 | 0.6 | 0.6 |
| 지방재정 지출 | 6.8 | 6.5 | 5.4 | 5.0 | 4.6 | 4.1 | 3.3 |
| 공기업 자체(own-financed) 지출 | 7.9 | 7.7 | 7.5 | 7.4 | 7.4 | 7.7 | 7.3 |
| 중앙정부 보조금 (공공부문 은행) | 7.3 | 0.0 | 0.0 | 0.0 | 0.0 | 0.0 | 0.0 |
| 기타 자본지출 | -1.4 | 2.0 | 1.4 | 1.2 | 1.5 | 1.5 | 1.5 |
| 회계 조정 | -9.3 | -5.8 | -5.8 | -6.1 | -6.2 | -5.6 | -5.7 |
| 공공부문 총투자 | 69.0 | 62.8 | 52.7 | 49.9 | 47.1 | 48.5 | 49.8 |
| 감가상각 공제 | -19.5 | -20.5 | -21.8 | -22.8 | -23.8 | -24.7 | -25.7 |
| 공공부문 순투자 | 49.4 | 42.3 | 30.9 | 27.1 | 23.4 | 23.8 | 24.1 |
| 총관리지출 ³⁾ | 669.8 | 698.2 | 703.7 | 711.3 | 719.3 | 733.0 | 752.9 |
| DEL | 291.1 | 319.0 | 331.9 | 339.4 | 345.6 | 359.1 | 371.7 |
| AME | 378.8 | 379.2 | 371.8 | 371.9 | 373.8 | 373.9 | 381.2 |
| 자원 DEL 감가상각 | -13.1 | -14.3 | -14.3 | -14.3 | -14.3 | -14.3 | -14.3 |
| 총관리지출 GDP 비중(%) | 47.7 | 47.1 | 45.4 | 43.7 | 41.8 | 40.4 | 39.3 |
| 6월 예산안과의 차이(%) | 0.2 | -0.2 | -0.1 | -0.2 | -0.4 | -0.6 | -0.5 |

주 1) FY2009-10~FY2011-12까지 아동수당과 구직수당은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에 포함

2) 순공공서비스연금(Net public service pensions) 지출은 국민계정 기준으로 작성

3) 총관리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 공공부문 순투자, 공공부문 감가상각의 합계(한시적 금융시장개입 효과 제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0. 11), Table 4.14~15

<표 VI-6> 부처별지출한도(DEL)¹⁾

(단위 : 십억파운드)

| | baseline ²⁾ | | | | |
|-------------------------------------|------------------------|-----------|-----------|-----------|-----------|
| | FY2010-11 | FY2011-12 | FY2012-13 | FY2013-14 | FY2014-15 |
| Education | 58.4 | 56.1 | 56.3 | 56.2 | 57.2 |
| NHS (Health) | 103.8 | 105.9 | 108.4 | 111.4 | 114.4 |
| Transport | 12.8 | 13.0 | 13.1 | 12.5 | 12.0 |
| CLG Communities | 9.0 | 5.3 | 4.0 | 3.4 | 3.2 |
| CLG Local Government | 28.5 | 26.1 | 24.4 | 24.2 | 22.9 |
|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18.6 | 17.6 | 16.7 | 15.5 | 14.6 |
| Home Office | 10.1 | 9.4 | 9.0 | 8.4 | 8.3 |
| Justice | 8.9 | 8.6 | 8.0 | 7.6 | 7.3 |
| law Officers' Departments | 0.7 | 0.7 | 0.6 | 0.6 | 0.6 |
| Defence | 32.9 | 33.8 | 34.4 | 34.1 | 33.5 |
|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 1.6 | 1.6 | 1.6 | 1.5 | 1.3 |
| International development | 7.8 | 8.1 | 8.8 | 11.3 | 11.5 |
| Energy and Climate change | 2.9 | 3.0 | 3.4 | 3.5 | 3.7 |
|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 2.9 | 2.6 | 2.5 | 2.3 | 2.2 |
| Culture, Media and Sport | 1.5 | 1.6 | 1.5 | 1.3 | 1.3 |
| Olympics ³⁾ | 1.0 | 1.1 | 0.2 | 0.0 | -0.1 |
| Work and Pensions | 7.0 | 7.8 | 7.7 | 7.8 | 7.8 |
| Scotland | 28.2 | 27.3 | 27.6 | 27.5 | 27.7 |
| Wales | 15.0 | 14.5 | 14.5 | 14.5 | 14.6 |
| Northern Ireland | 10.5 | 10.3 | 10.3 | 10.3 | 10.3 |
| HM Revenue and Customs | 3.7 | 3.8 | 3.6 | 3.5 | 3.4 |
| HM Treasury | 0.2 | 0.2 | 0.2 | 0.2 | 0.2 |
| Cabinet Office | 0.4 | 0.5 | 0.4 | 0.3 | 0.5 |
| Single Intelligence Account | 2.0 | 2.1 | 2.1 | 2.1 | 2.1 |
| Small and Independent Bodies | 1.9 | 1.8 | 1.6 | 1.6 | 1.5 |
| Reserve | 4.1 | 3.3 | 3.4 | 3.5 | 3.6 |
| Special Reserve | 4.1 | 4.0 | 3.8 | 3.8 | 3.5 |
| Green Investment Bank | - | - | - | 1.0 | - |
| Total DEL | 378.2 | 370.1 | 368.8 | 370.1 | 369.1 |

주: 1)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함께. 단, 감가상각 제외

2) 일회성 지출 및 한시적(time-limited) 지출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3) 올림픽 지출은 문화·미디어·스포츠(Culture, Media & Sport) 부처의 부처별지출한도에 포함됨

출처: Spending Review 2010, Table A.9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국가 인프라구축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 영국 최초의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계 총 2,000억파운드 규모 투자 (2010. 10. 25 발표)
- Spending Review 2010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에 400억파운드 이상을 배분
 - 고속철도 등 교통분야에 300억파운드 규모 투자 등

□ 지방정부 차입 권한 확대 및 인프라구축 등 지역성장 지원

- 향후 3년간 일부 지역에서 창업한 고용주의 부담 경감과 고용촉진을 위한 국가보협기여금(NICs) 감면
 - 해당 지역 : outside London, South East of England, East England
 - 창업 후 1년 동안 최대 10명의 근로자에 대해 NICs 고용주부담 중 1인당 5,000파운드 면제
- 지역투자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정부에 새로운 차입 권한 부여(Tax Increment Financing, 2010. 9. 20. 발표)
 - 각 지역의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전망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지역 인프라구축 및 기타 자본지출 사업에 차입 허용
- 지역 인프라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0억파운드 규모의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지원을 정부에서 발표한바 있으며, Spending Review 2010에서는 14억파운드로 상향조정함

□ 이전 노동당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유지와 법인세 개혁 등 기업지원

- 200만~1,000만파운드 규모의 성장자본기금(Growth Capital Fund)으로 중소기업 지원 (2009 Pre-budget 발표)

- 예산안 2011에서 FY2014-15까지 법인세 기본세율을 현행 28%에서 24%로 인하 방침을 확정할 계획
 - 하이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특허 수익에 대해 FY2013-14부터 법인세 저세율(10%) 적용

나. 재정건전화

- ‘연정협약서’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내용 (2010. 5. 11)
 - 의회 절차를 거쳐 구조적 적자에 대한 감축 가속화, 세금인상보다 지출삭감을 통한 적자감축 합의
 - 50일 이내 긴급예산안 마련(6. 22 발표)하고 예산관련 전망은 독립적인 예산책임청(OBR)을 설립하여 수행
 - FY2010-11 비일선 서비스 예산 60억파운드 삭감
 - 아동신탁기금(CTF) 및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

- FY2010-11 지출삭감(saving package) 발표 (2010. 5. 24)
 - 약 62억파운드의 지출을 삭감하되, 핵심 공공서비스는 보장
 - 학교, Sure Start, 16~19세 대상 교육지출은 지출삭감에서 제외
 - 정부조달사업 계획 조정 등 계약의 연기 및 중단(17억파운드), 정부 컨설팅 및 홍보 비용(11억 5천만파운드), 독립 공공기관 비용(6억파운드), 부동산 비용 삭감(1억 7천만파운드) 등
 - 62억파운드 중 5억파운드는 직업기술교육, 공공주택 등에 재투자 가능

- 저효율 사업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2010. 6. 17)
 - VfM(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
 - 약 20억파운드의 12개 사업 예산삭감, 약 85억파운드 규모의 12개 사업 보류

- 20억파운드 중 약 3억 7천만파운드는 5월 발표한 62억파운드 긴축안에 포함
-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FY2010-11 지출 중 최소 10억파운드 삭감 계획
 - 각 부처와 총 15억 4천만파운드 삭감 합의 (2010. 7. 5)

□ 6월 예산안에서 FY2015-16 경상수지 균형달성 목표 설정 (2010. 6. 22)

- 3월 예산안 이후 6월 예산안의 정책결정으로 FY2010-11에 약 8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 추가 확보
- FY2014-15에 지출삭감 320억파운드, 세금인상 80억파운드 확보 계획
 - 11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개혁 시행
-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15-16에 1.1%까지 감소 전망
- 공공부문 순부채는 FY2013-14에 GDP의 70.3%까지 증가하였다가 FY2015-16에 67.4%로 감소 전망

□ 조세회피 방지 계획에 대한 재원 투입 발표 (2010. 9. 20)

- Spending Review 기간(2011. 4~2015. 3) 동안 국세청에 9억파운드 추가 배정
 - 회피 및 탈루 방지, 세금 채무(tax debt) 축소, 조직적 범죄 방지 등 조세회피 방지 대책에 투입
- FY2014-15까지 연간 70억파운드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복지예산 삭감 및 공공인력 감축 (Spending Review 2010. 10)

- 복지예산 삭감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FY2014-15에 70억파운드 규모 추가 삭감
 - 6월 긴급예산안에서 복지지출 삭감규모는 FY2014-15에 110억파운드 규모
- 근로연령(working-age) 인구에 대한 자산조사 급여와 세액공제 등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일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Universal Credit 제도로 전환할 계획
 - 제도전환을 위해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 향후 4년 동안 20억파운드 배정

- 공공인력 49만명 감축 전망
 - 11월 OBR 경제재정전망에서 33만명으로 축소 전망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의료) 국가의료서비스(NHS) 지출의 실질인상을 보장하고 효율화 프로그램 및 의료제도 개혁으로 지출 감축 노력 (Spending Review 2010)
 - NHS 재원(funding)에 대해 매년 실질 인상을 보장하고, FY2011-12 ~FY2014-15 기간에 총의료지출의 실질증가율은 0.4%까지로 설정
 - NHS를 통해 사회적보호(social care)에 연간 10억파운드를 추가 지원하여 FY2014-15까지 연간 총 20억파운드의 사회적보호 지원
 - 암치료 신약 자금을 연간 2억파운드 인상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자본(투자) 지출은 44억~46억파운드로 일정수준 유지
 - NHS 효율화 프로그램(Quality, Innovation, Productivity & Prevention: QIPP)을 통해 FY2011-12~FY2014-15까지 연간 200억파운드의 지출절감 목표 설정
 -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발표한 암환자 1:1 간호 등 일부정책은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연기
 - 2013년까지 1차 진료기관(Primary Care Trusts)과 전략 의료기관(Strategic Health Authorities)을 폐지
 - NHS 관리구조의 단일화, 비용절감 및 일선 의료인력 역량강화 도모
 -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위해 18개의 정부 산하 의료기관(Arms Length Bodies)을 2013년까지 10개로 축소

□ (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 기준 변경

- 기초국가연금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20년 기준 66세로 상향 조정
 - 2015~2025년까지 약 300억파운드의 지출 절감 기대
- 2011년 4월부터 기초국가연금(Basic State Pension) 인상기준 변경을 적용하여 연금수급자 소득 지원
 - 물가, 임금, 2.5% 중 높은 기준에 연동한 급여인상으로 약 1,10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공공서비스연금 개혁을 위해 독립위원회(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에서 검토를 진행 중 (2010. 11. 26)
 - 급여수준, 기여율 등 단기적 요소와 중장기 제도개혁에 대한 위원회 검토 내용은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
 - 대표적으로 지방정부, NHS, 교사, 공무원, 군인 연금이 공공서비스연금에 해당되며, FY2008-09 기준 지출은 320억파운드로 기초국가연금 비용의 약 2/3에 해당

□ (기타 복지) 고용지원수당 축소, 근로세액공제 동결 등 재정긴축 강화를 위한 복지급여 축소

- (아동) 고소득 가구에 대한 아동급여(Child Benefit) 동결, 저소득 가구에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 강화
 - 연간 21,600파운드 이하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제도변화로 소득지원 효과 강화
 - 2013년부터 가구소득 기준 43,875파운드 이상의 고세율 납세자는 자녀급여(Child Benefit)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복지급여 상한) 가구 기준으로 총 사회보장급여의 상한(Benefit Cap) 설정
 - 비근로가구의 복지급여가 평균가구소득을 상회하지 않도록 근로가구의 세후(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액 설정
 - 2013년에 부부 혹은 한부모 가구의 평균소득은 주당 506파운드, 독인가구는 주당

350파운드 정도로 예상됨(현재 근로가구의 세후 중위소득은 주당 479파운드)

- (복지급여 간소화) 2012년까지 다양한 자산조사 복지급여와 세액공제 제도를 Universal Credit 제도로 전환할 계획

<표 VI-7> Spending Review 2010의 복지급여 삭감 내용

| 개혁안 | 세부내용 | 재정긴축 규모 |
|---|---|-----------------------------|
| 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RAG(Work Related Activity Group)에 포함되는 경우 ESA를 1년간으로 제한 약 1백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ESA는 장애나 건강상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주 91~97파운드 지급 | FY2014-15기준 연간 20억파운드 |
| 가구당 복지급여 한도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전쟁미망인연금(War Widow Pension), 일회성 급여는 제외 | FY2014-15기준 연간 2억 7천만파운드 |
| 고세율납세자 자녀급여 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부터, 가구소득 기준 43,875파운드 이상 | FY2014-15 기준 연간 25억파운드 |
| 근로세액공제 동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기본 요소(basic elements)와 30시간 요소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분만 적용 현재 기본요소는 연간 1,920파운드, 30시간 요소는 연간 790파운드임 | FY2014-15기준 연간 6억 2,500만파운드 |
|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4월부터 2자녀 이상의 부부의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에 부부합계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추가 현행: 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 FY2014-15기준 연간 3억 9천만파운드 |
|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는 비용의 80%에서 70%로 삭감 | FY2014-15기준 연간 3억 8,500만파운드 |
| 지역주거수당에서 Shared Room Rate 연령제한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Shared Room Rate는 지역주거수당 규칙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는 25세 미만의 독신에 대해 적용 연령제한을 3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비율을 적용 중증장애 요건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되며, 연령제한 확대 조치는 총 8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 FY2014-15기준 연간 2억 1,500만파운드 |
| 장애생활수당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2-13부터 요양시설 수급자의 장애생활수당 중 이동편의서비스 요소 부분 지급중지 자가거주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약 5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 FY2014-15기준 연간 1억 3,500만파운드 |
| 지방세보조급여 삭감 및 지방부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3-14부터 지방세보조급여(Council Tax Benefit)를 최대 10% 삭감하고 지방정부 및 권한이양행정부에 급여지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 | FY2014-15부터 연간 4억 9천만파운드 |
| 연금공제에서 연령가산부분 동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금에 추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연령가산(Saving Credit) 한도를 2015년까지 동결 최대한도는 독신 20.52파운드, 부부 27.09파운드로 약 180만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 FY2014-15기준 연간 3억 3천만파운드 |